

〈해설 자료〉 OECD Economic Survey: Korea 2026 Ch.3 결과

AI는 지금까지 한국 청년의 양질 고용 기회를 잠식해 왔다

이중노동시장이 키운 과열 경쟁 - AI 고노출 산업에서 29세 이하만 순 고용 감소

OECD가 AI 노출도별로 산업을 나눠 분석한 결과, 순 일자리 창출은 소프트웨어·전문서비스·정보서비스·R&D 등 AI 고노출 산업에 집중되었으나 그 혜택은 30세 이상에 돌아갔고, 29세 이하 청년은 이들 부문에서 순 고용 감소를 겪음. 청년 일자리 창출은 2022년 전후 추세가 꺾였고, 2025년 11월 20~30대 '쉬었음'은 71만 9천 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에 이름. 그 배경에는 임금·고용안정·사회보호 격차가 큰 이중노동시장이 있음. 이 격차가 명문대·고부담 시험을 향한 청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며, 청년(25~34세)의 71%가 고등교육을 이수(OECD 최고)했음에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은 31%로 OECD 평균(54%)을 크게 밑도는 역설을 낳음. 이에 이중구조 해소, 고부담 시험 중심 유인구조 개혁, AI와 보완적인 역량 형성을 함께 추진해야 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고등교육 이수율 OECD 최고 vs 하락하는 학위 프리미엄 — 청년 고용의 역설

- (시의성) OECD 「한국경제보고서 2026」이 AI 전환기 청년 고용과 이중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. AI 노출도별 산업 고용을 연령대로 나눠 본 분석은 이번 보고서의 새로운 실증임
- (기존 인식의 한계) 청년(15~24세) 실업률 6.4%(OECD 평균 11.1%의 절반 수준)라는 총량 지표만 보면 청년 고용은 양호해 보이나, 일자리의 질과 진입 지연 문제가 가려짐
- (분석 틀) 이중노동시장 격차, 고부담 시험 중심 유인구조, AI 노출도별 산업의 연령대별 순 고용 변화를 함께 분석함
- (차별성) 실업률 등 총량 지표가 아니라, 일자리의 질과 세대 간 고용 기회 배분에 초점을 둠

분석 자료 및 용어

- 자료: OECD(2026),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, 제3장
- 이중노동시장(Dual labour market): 임금·고용안정·사회보호에서 격차가 큰 정규·비정규 부문의 분절 구조
- AI 노출도(AI exposure): 산업 직무가 AI 기술로 대체·보완될 수 있는 정도. 원문은 산업을 노출도 4분위로 구분
- 학위 프리미엄(Earnings premium): 학위 보유가 임금에 주는 추가적 이득

※ 본 호는 OECD 「한국경제보고서 2026」(2026. 7. 발간) 제3장 중 청년 고용·AI·이중노동시장 관련 진단과 정책 권고를 정리·재구성한 것으로, 제목·부제는 원문 표현을 원용하였음.

02 분석 결과

| AI 고노출 산업의 순 고용, 30세 이상은 늘고 29세 이하만 줄었다

- (근거) 산업을 AI 노출도 4분위로 나눠 보면, 고령화로 커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순 일자리 창출은 소프트웨어·전문서비스·출판·정보서비스·R&D 등 AI 고노출 산업에 집중됨
- (발견) 그 혜택은 30세 이상 핵심연령에 돌아갔고, 29세 이하 청년은 같은 부문에서 순 고용 감소를 겪음. 청년 일자리 창출은 2022년 전후로 추세가 꺾임
- (의미) OECD는 AI가 고급 역량과 보완적임에도, 지금까지 한국 청년의 양질 고용 기회를 잠식해 왔다고 진단함



| 그림 1 | AI 고노출 산업의 연령별 순 고용: 30세 이상 증가, 29세 이하 감소

자료: OECD(2026),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, Figure 3.3 "Artificial intelligence may already be changing the Korean labour market"(Panel B). 원자료: Han and Oh(2025)를 응용한 저자 계산(원문 제3장 인용문헌[10])

주: 본 그림은 원문 그림의 연령대별 방향만을 나타낸 모식도로, 막대 크기는 실제 규모가 아님. 정확한 수치는 원문 StatLink를 참조
StatLink: <https://stat.link/u1zjby>

참고: 원문의 AI 노출도 분석 개요(Figure 3.3)

- 산업을 AI 노출도에 따라 4분위로 구분하고, 분위별 순 일자리 창출을 연령대(30세 이상/29세 이하)로 나눠 비교
- 고노출 산업: 소프트웨어 개발, 전문서비스, 출판, 정보서비스, 연구개발(R&D) 등
- 예외: 사회복지서비스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노출도와 무관하게 고용이 확대
- 핵심 발견: 청년(29세 이하) 일자리 창출은 2022년 전후로 추세가 반전(trend break)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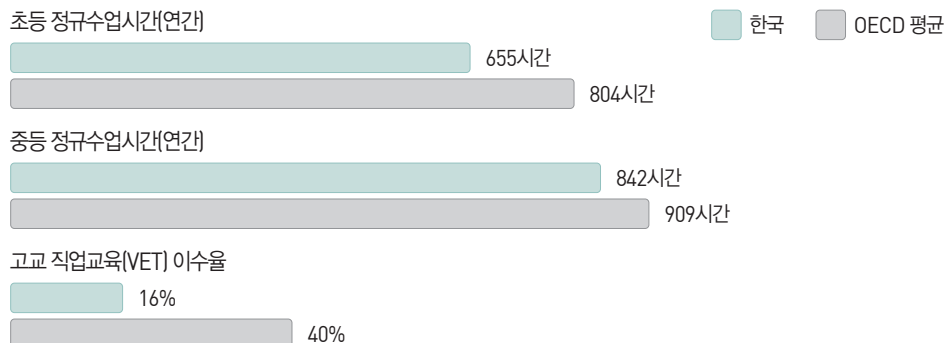
| 이종노동시장이 키운 과열 경쟁 —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소모전

- (근거) 임금·고용안정·사회보호 격차가 큰 이종노동시장이 명문대 진학·고부담 시험을 향한 청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, 막대한 공적·사적 자원이 사교육에 투입됨
- (함의) 청년이 옛 체제가 제공하는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 풀(pool)을 놓고 계속 경쟁하면서, 고용주가 요구하는 폭넓은 역량 형성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음
- (파급) 이종구조와 연공서열 임금에 따른 조기퇴직은 평생학습·역량투자 유인도 함께 꺾음
- (사다리) 비정규직(중소기업에 많음)에서 정규직(대기업에 많음)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어, 비정규 청년은 저질 일자리를 전전하며 기업특수 자본을 쌓지 못하고 더 생산적인 일자리로 오르는 사다리에서 밀려남

| 사교육에 갇힌 학습 시간 - 정규교육은 짧고 사교육은 길다

- (근거)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약 10%에 달하며 계속 증가 추세임
- (비교) 정규 수업시간은 초등 연 655시간으로 OECD 평균(804시간)보다 짧고, 중등도 842 시간으로 OECD 평균(909시간)에 못 미침. 정규교육이 짧은 만큼 사교육 의존이 그 공백을 메우는 구조
- (대안 경로 위축) 고교 직업교육(VET) 이수 비율은 16%로 OECD 평균(40%)의 절반에도 못미쳐, 대안적 진로 선택지가 좁음

- (함의) 명문대·고부담 시험을 향한 과열 경쟁(§이중노동시장 섹션)이 사교육 의존을 낳고, 이는 다시 정규교육 시간 부족과 직업교육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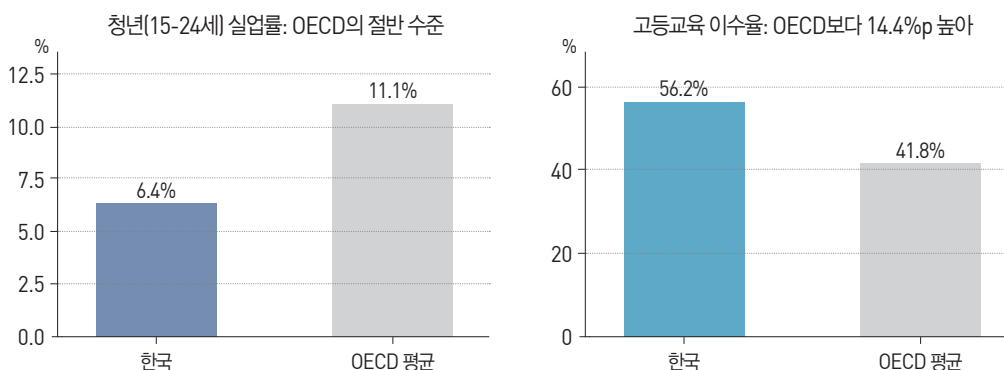
| 그림 2 | 정규교육은 짧고 직업교육 이수율은 낮다

자료: OECD(2026),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, \$3.2.1

주: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약 10%(그래프 미표시)

| 고학력의 역설 — 이수율 OECD 최고에도 학위 프리미엄은 하락

- (근거) 청년(25~34세)의 71%가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최고 수준이나, 학위의 임금 프리미엄은 하락 중이고 고학력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음
- (해석) OECD는 그 원인으로 학위 과잉공급, 전공 선택, 대학 질(고등교육 질이 이수 확대를 따라가지 못함)을 지목함



| 그림 3 | 낮은 청년 실업률에도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- 총량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청년 고용의 이면

자료: OECD(2026),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, "Basic statistics of Korea, 2024"(p.9). 청년(15~24세) 실업률 한국 6.4%-OECD 11.1%, 고등교육 이수율 한국 56.2%-OECD 41.8%(괄호 안 OECD 평균 기준)

주: 학위 프리미엄 하락의 상세 근거는 원문 Figure 3.7 'The tertiary education earnings premium is falling in Korea' 참조. 본문 71%는 25~34세 고등교육 이수율(\$3.1)임

| 진입 지연의 결과 — 20·30대 '쉬었음' 71만 9천 명, 2003년 이후 최고

- (근거) 2025년 11월 기준 20~30대 약 160만 명(해당 연령대의 12.7%)이 미취업 상태로, 실업자 35만 9천 명, 취업준비자 51만 1천 명에 더해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는 '쉬었음'이 71만 9천 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함
- (공시)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010년대 중반 20만 명 이상에서 최근 10만 명대 초반으로 줄었으나, 연간 합격률은 급수·연도에 따라 1~5%에 그치고 응시자의 60~70%가 재도전자임. 고부담 시험이 여전히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통로로 작동함
- (프리미엄) 대졸 임금 프리미엄은 2024년 고졸 대비 31%로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OECD 평균(54%)을 크게 밑돌며, PIAAC 비교 결과 하락 추세가 확인됨(원문 Figure 3.7)
- (의미) OECD는 '쉬었음' 최고치를 학위 프리미엄 하락·고부담 시험과 같은 절에서 제시하며, 청년의 진입 지연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임을 시사함

03 시사점: 구조·유인·전환의 세 갈래

| 이중구조 해소·시험 유인 개혁·AI 보완역량, 세 갈래를 함께 풀어야 한다

- (종합) OECD 진단에 따르면 청년 고용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총량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유인임. 이에 원문의 주요 진단·정책 권고를 ① 이중노동시장, ② 유인구조(고부담 시험), ③ AI 전환의 세 축으로 재배열하여 1:1로 대응시킴

| 표 1 | 청년 고용 역설의 진단과 처방: 구조·유인·전환의 세 갈래

목표집단	현상 및 진단	정책 방향
이중노동시장 격차·이중구조	• [격차齟齬 경쟁] 임금·고용안정·사회보호 격차가 명문대·좋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의 과열 경쟁을 유발함 • [유인 약화] 이중구조·연공서열 임금에 따른 조기퇴직이 평생학습·역량투자 유인을 약화시킴	• [이중구조 해소]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• [임금체계 개편] 임금을 직무·성과에 연동하고 산별 표준협약을 이행, 정년 개편을 검토
유인구조 고부담 시험	• [암기학습 조장] 대학·공무원·전문직 진입의 고부담 시험이 암기학습을 조장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킴 • [질 mismatch] 고등교육 이수 확대가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해 학위 프리미엄이 하락함	• [시험 의존 완화]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반영하는 대학 입학전형 강화, 전문직·공무원 진입체계를 개편 • [대학 질 제고] 대학 질 개선과 전공-노동수요 정렬로 학위의 실질 가치를 회복
AI 전환 노출·역량	• [청년 기회 잠식] AI 고노출 산업의 순 고용이 30세 이상에 집중되고 29세 이하의 순 고용 감소를 겪음 • [보완역량 부족] AI와 보완적인 비판적 사고·자기주도학습 등 고급 역량 형성이 미흡함	• [보완역량 형성] AI와 보완적인 고급 역량(비판적 사고·문제해결) 교육 훈련을 강화 • [이행 지원] 청년의 실질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무·직무경험 기회를 확대

자료: OECD(2026),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, 제3장 말미의 '주요 진단 및 정책 권고(Main findings and recommendations)' 표 중 청년 고용·AI·이중노동시장 관련 항목을 발췌·재배열함. 굵은 권고는 원문 핵심(key) 권고에 해당

| 정부의 첫걸음은 땀 — 관건은 구조 개혁과의 병행

- (여견) 원문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9월 '청년고용 첫걸음 보장(Youth Employment First Step Guarantee)'을 발표하고, '쉬었음' 청년을 발굴해 구직 동기 회복을 돕는 등 개인 여건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- (종합) 다만 OECD의 진단대로 문제의 뿌리가 이중노동시장과 고부담 시험 유인구조에 있는 만큼, 발굴·상담형 지원만으로는 청년이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 풀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기 어려움. 맞춤 지원과 구조 개혁을 병행할 때 정책 효과가 커짐

참고문헌 OECD (2026).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. OECD Publishing, Paris. <https://doi.org/10.1787/6b87f585-en> / Han & Oh (2025). 원문 제3장 인용문헌[10]
※ 본 Issue Brief는 위 OECD 보고서 제3장의 주요 내용을 정리·재구성한 것으로, KRIVET의 독자 분석 결과가 아님. 정확한 수치·논거는 원문 및 각 그림의 StatLink를 확인하기 바람.

[보도 참고]

- 이 Issue Brief는 OECD 「한국경제보고서 2026」 제3장(청년·AI·이중노동시장)의 핵심 진단과 정책 권고를 정리한 것입니다.
- 원문 보고서: OECD iLibrary → OECD Economic Surveys: Korea 2026 (doi:10.1787/6b87f585-en)
- 데이터 제공: 원문 각 그림의 StatLink에서 그래프 원자료 내려받기 가능